

문화성향과 종결욕구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

주 미 정

이 재 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성향(개인주의-집단주의, 또는 수평적-수직적 사고)과 종결욕구 수준(저-고집단)의 조합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Singelis 등[1]의 INDCOL 척도와 이성수[2]의 NFC 척도를 사용하여 문화성향과 종결욕구 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후,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추구와 위험회피의 틀효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득틀 조건에서는 위험회피 대안의 선택 비율이, 반면 손실틀 조건에서는 위험추구 대안의 선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2) 두 가지 문화성향(개인주의-집단주의,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에 따른 틀효과 차이는 각각 유의하지 않았으나, 종결욕구가 높은 집단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에 비해 손실틀 조건에서 위험추구 대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3)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수평적 사고성향에서는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수직적 사고성향에서는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틀효과에 대한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수직적 사고성향의 영향은 종결욕구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에서만 관찰되었다.

주요어 : 틀효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수평적-수직적 사고, 종결욕구

*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30-B00297).

† 교신저자: 이재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
E-mail: jslee100@pusan.ac.kr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한다. 하지만 항상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연구주제 중의 하나가 틀효과(framing effect)이다. 틀효과는 사람들이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이득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Kahneman과 Tversky[3]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기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틀효과란 동일한 정보를 긍정적(positive/gains)으로 표현하는지 아니면 부정적(negative/losses)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틀효과는 제시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4]: 속성 틀효과, 목표 틀효과 및 위험선택 틀효과. 속성 틀효과(attribute framing effect)는 단일한 하나의 대상이나 사건의 속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evaluation)가 달라질 때의 틀효과이다. 목표 틀효과(goal framing effect)는 목표로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경우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목표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행동의 수행 정도(rate of behavior)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틀효과이다. 그리고 위험선택 틀효과(risky choice framing effect)는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는 위험회피 대안(risk-avoidant option)과 위험부담이 있는 위험추구 대안(risk-seeking option)의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각각의 선택 대안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대안 중에서 선호(preference)하는 대안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틀효과이다. 즉, 위험선택 틀효과란 선택 가능한 대안이 긍정적으로 제시되는 이득 조건인 경우 위험회피 대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위험추구 대안을 선택하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반면, 선택 가능한 대안이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손실 조건인 경우에는 위험추구 대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위험회피 대안을 선택하는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틀유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위험선택 틀을 사용하여 틀효과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위험회피 대안의 선택 혹은 위험추구 대안의 선택 경향이 더 편향되어 나타날수록 틀효과가 “현저하다” 또는 “강하다”라고 표현하고자 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뒤에 제시되어 있다).

Tversky와 Kahneman[5]의 연구에서는 “아시아 질병 문제(Asian disease problem)”를

통해 위험선택 틀효과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600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희귀한 아시아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A 대안과 B 대안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 후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여기에서 A 대안은 위험회피 대안이고 B 대안은 위험추구 대안으로 정의되었다). 이 때 제시되는 두 가지 대안은 이득틀 조건인 경우 “A 대안을 선택하면 확실히 200명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와 “B 대안을 선택하면 600명의 목숨을 구하게 될 확률은 1/3이고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할 확률은 2/3이다”였다. 그리고 손실틀 조건의 경우 “A 대안을 선택하면 확실히 400명이 죽게 된다”와 “B 대안을 선택하면 한 명도 죽지 않을 확률은 1/3이고 600명 모두 죽게 될 확률은 2/3이다”였다.

이 연구를 통해 Tversky와 Kahneman[5]은 사람들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이득틀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있는 위험추구 대안(B 대안)보다는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는 위험회피 대안(A 대안)을 선택하는 반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손실틀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는 위험회피 대안(A 대안)보다는 위험부담이 있는 위험추구 대안(B 대안)을 선택하는 선호 역전(preference reversal)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선호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준거점(reference point)이 틀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사람들은 이득틀 조건에서는 손실(loss)을 준거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위험회피 대안을 선택하려 하지만, 손실틀 조건에서는 이득(gain)을 준거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위험추구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는 것이다.

Tversky와 Kahneman[5]의 틀효과에 대한 연구 이후 많은 연구들이 틀효과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틀효과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로 개인의 성격[6], 인지욕구[7], 분석적-종합적 정보처리 유형[8], 혹은 상황 변인(예를 들어, 시간압력을 통한 인지부하 등: [9])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개인이 속한 집단이 갖고 있는 문화성향(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과 같은 상위인지적(metacognitive) 요인에 따라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틀효과의 차이가 관찰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e. g., [10]).

그러나 최근에는 틀효과를 개인의 정보처리 속성, 또는 동기 요인과 같은 개별적이고 단순한 변인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인의 결합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인지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수록 틀효과는 줄어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로 보고되었으나[7], Simon, Fagley 및 Halleran[11]은 단순히 인지욕구만으로는 틀효과를 현저하게 낮출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틀효과를 단순한 정보처리 과정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Igou와 Bless[12]에 따르면 틀효과는 인지적 노력이 포함되는 정보의 구조적 처리(constructive processing)와 함께 과제 수준, 동기, 그리고 인지능력 등과 같은 여러 복합적 요인들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사결정에서 흔히 관찰되는 틀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처리 능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속성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에서의 동기적 요소, 나아가 문화성향을 포함하는 상위인지적 요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의 상위인지 속성인 문화성향과[10, 13], 문화성향을 강화하는 요소인 동시에 틀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동기 요소 중 하나인 종결욕구[14]를 함께 고려하여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의 조합에 따라 틀효과에서의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틀효과와 관련하여 문화성향과 종결욕구의 효과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을 개관한 후, 본 연구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문화성향과 틀효과

문화성향의 여러 차원 중에서 연구 주제로 많이 사용되는 문화성향의 차원은 개인을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집단주의 문화성향으로 구분하는 것이다[15]. 간단히 요약하면, 개인주의(individualism) 문화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독립된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며, 집단의 목표보다 개인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집단주의(collectivism) 문화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집단의 구성원들과 상호의존된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며, 개인의 목표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더 우선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개인의 문화성향과 인지적 처리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들은 문화성

향에 따라 주의, 지각, 범주화, 그리고 귀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인지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사람들은 맥락과 관계성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고[16], 대상보다는 배경을 더욱 오래 응시하며[17], 사물들 간의 유사성이나 관계성에 기초하여 범주화하고[18], 가능한 많은 정보를 사용하여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한 여러 상황 요인들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한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19].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주의 문화성향의 사람들은 대상 자체에 주의의 초점을 기울이는 경향이 강하고[17], 사물들 간의 규칙에 기초하여 범주화하고[18], 절대 판단 과제에서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수행을 보인다는 것을 관찰하였다[16].

개인의 문화성향은 틀효과에서의 차이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주의 문화성향에 속하는 사람들보다는 집단주의 문화성향에 속하는 사람들에서 틀효과가 더 컸다[10, 13].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러한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위험한 결정, 즉 손실될 조건에서 개인주의 문화에 속하는 사람들에 비해 위험추구 대안을 선택하는 비율을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으로, 정보처리과정에서 집단주의 문화성향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사고(holistic thinking)를, 반면 개인주의 문화성향에 속하는 사람들은 분석적인 사고(analytic thinking)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처리 유형에서의 차이가 틀효과에서의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는 문화성향 집단의 분류체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성향을 분류할 때 기준이 되는 연구의 대상에 대한 것이다. 먼저 문화성향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Triandis[20]는 동일 국가 내에서의 문화성향 개인차를 언급하면서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분류체계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성향의 영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이외에 또 다른 문화성향 차원인 수평적(horizontal)-수직적(vertical) 사고성향 차원을 제안하였다.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위계구조(hierarchy)에 의한 불평등의 수용 여부이다. 즉, 수평적 사고성향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동등성(equality)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수직적 사고성향에 속하는 사람들은 지위에 따른 불평등(inequality)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문화성향과 정보처리 사이의 개인차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뿐만 아니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에 따라서도 개인의 정보처리 양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주미정과 이재식[21]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전역선행성 효과¹⁾가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에 따라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즉,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는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수직적 사고성향에서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더구나 연구에 따라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보다는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이가 정보처리에서의 개인차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실제로 주미정, 신현정, 이재식[22]의 연구에서는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는 관찰되었던 반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에서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연구대상자로 한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정보처리에 대한 영향은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미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화성향에 따른 인지적 처리과정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뿐만 아니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도 함께 고려한다면 개인의 문화성향에 따른 인지적 처리에서의 개인차를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에서 기술되었지만) 동일한 개인주의 문화권 혹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에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에 따른 차이보다는 수평적-수직적 문화성향 차원에 따라 개인차를 더 잘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기술된 내용과 관련하여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살펴보

1) 전역속성과 국소속성이 일치하지 않는 복합자극에 대한 처리에서 전역속성에 대한 처리가 국소속성에 대한 처리에 선행하고 이에 따라 전역속성은 국소속성에 대한 처리를 간섭하는데, 그러한 간섭의 효과는 개인주의 문화성향의 집단보다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집단에서 더 크다는 것.

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는 문화성향을 분류할 때 서로 다른 문화권(혹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을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 문화권 내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을 분류할 것인지 이다. 비교문화에서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Yang[23]은 서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문화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도구나 방법에서의 문화간 동등성(equivalence)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문화성향을 가진 집단내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Oyserman, Coon, 그리고 Kimmelmeier[24]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개인보다는 동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개인 사이의 차이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Koo와 Choi[25]는 동일 문화권인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전공을 기준으로 집단주의 문화성향이 특히 강한 전공(즉, 한의학)의 학생들과 다른 전공 학생들을 비교할 때(집단주의 문화성향의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hoi, Koo와 Choi[26]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분석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사성 판단(범주화) 과제와 인과관계 해석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을 때, 이 두 집단이 보인 반응에서의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종결욕구와 틀효과

위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문화성향과 같은 개인의 상위인지적 속성에 따라 틀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틀효과와 관련된 흥미로운 변인 중의 하나는 인지적 종결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 NFC, 이후에는 ‘종결욕구’로 표기함)이다. 종결욕구란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동기화된 경향성[27]으로, 어떤 질문에 대해 모호함을 피하고 어떠한 답이든 확고한 답을 원하는 욕구로 정의된다[28]. 이러한 종결욕구는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얻은 답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 답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그것을 답으로 결정하는 ‘포착(seizing)’ 성향과, 이후 이러한 결정을 변경하지 않고 지속하려는 ‘보존(freezing)’ 성향을 일으킨다. Webster와 Kruglanski[27]는 종결욕구가 안정적인

다섯 가지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삶이 질서정연하고 구조화되기를 바라는 질서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order); 일관되고 변하지 않는 지식을 선호하는 예측가능성에 대한 선호(preference for predictability); 신속하게 종결에 도달하고자 하는 판단의 명확성(decisiveness); 애매한 상황을 싫어하는 모호함에 대한 불편감(discomfort for ambiguity); 자신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폐쇄적 사고(closed-mindedness). 개인이 갖고 있는 종결욕구의 특성에 따라 개인은 특징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은 인지적 판단을 할 때, 일반적으로 초두효과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29], 종결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종결욕구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휴리스틱(heuristics; [26, 30])과 고정관념[31]을 더욱 선호한다.

특히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일 경우 틀효과도 더욱 두드러진다[14]. 예를 들어, Liu 등[14]은 93명의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득틀로 제시된 대안과 손실틀로 제시된 대안에 대해 종결욕구 수준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한 선호도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이득틀의 대안과 손실틀의 대안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현저하였다. 다시 말해, 종결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틀유형과 상관없이 각 대안에 대한 선호도 점수가 유사하였으나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이득틀 대안에 대한 선호도 점수와 손실틀 대안에 대한 선호도의 점수 사이에 차이가 더 컸다.

따라서 종결욕구는 틀효과를 현저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종결욕구는 앞에서 기술한 문화성향의 효과를 조절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비록 문화성향에 따라 종결욕구 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지만[32], 종결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종결욕구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문화 특유의 성향을 더욱 현저하게 표현한다. 즉, 종결욕구 수준이 높은 경우 개인주의 문화성향에 속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특유의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성향에 속하는 사람들은 집단주의 특유의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한다[33, 34]. 예를 들어, Chiu 등[33]의 근본적 귀인오류 실험에서, 종결욕구가 증가하면 미국인들은 성향귀인이 더욱 증가하지만 중국인들은 상황귀인이 더욱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의 하나는 역동적 문화구성주의 가설이다(dynamic cultural constructivist hypothesis, [33, 35]). 간단

히 기술하면, 역동적 문화구성주의 가설에 따르면 특정 시점에서 어떠한 특성이나 상황적 요인이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문화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인지적 판단이 요구될 경우,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데 중립적인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친숙한 문화성향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속한 문화성향의 특성을 더욱 현저하게 표현하게 한다[33, 35]. 근본적 귀인오류에서 관찰되는 문화성향과 종결욕구 사이의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의사결정에서의 틀효과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연구 문제이다.

연구 목적

위에서 지적한 틀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가 갖는 차별적 특징과 연구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문화성향을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의 분류뿐만 아니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까지 고려하여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은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문화차원이 될 수 있다는 Triandis[20]의 주장과 전역선행성 효과와 같은 주의와 지각과정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못지않게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의 효과가 강력하게 관찰될 수 있다는 주미정과 이재식[21]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다면 틀효과에서도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일 국가(혹은 문화권) 안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개인차가 서로 다른 국가(혹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Oyserman 등[24]의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이 갖는 문화성향의 특성에 따라 틀효과에서 차이가 관찰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틀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성향이 갖는 효과를 비교하기보다 동일한 국가내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할 수 있다면 문화성향 차이 이외의 가외변인이 미칠 수 있는 혼입을 막을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으로 개인의 정보처리 속성이나 동기 요인 등을 개별적/독립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인지적 노력을 포함한 정보의 구조적 처리와 함께 과제의 수준, 동기, 그리고 인지능력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11, 12]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상위인지적 속성(즉, 문화성향)과 동기적 속성(즉, 종결욕구)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특정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가 종결욕구 수준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Hens와 Wang[13], 그리고 Wang과 Fischbeck[10] 등이 말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성향의 사람들보다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사람들에서 틀효과가 더욱 현저하다면, 그리고 Chiu 등[33]의 주장대로 종결욕구가 문화성향을 더욱 강화시킨다면, 문화성향과 틀효과와의 관계는 종결욕구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집단주의 문화성향(혹은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이 틀효과에 미치는 효과는 종결욕구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종결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더 두드러질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부산 소재의 P대학교에서 교양으로 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 302명이 학점에 추가점을 받는 조건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먼저 두 집단으로 구분한 후 틀유형별로 이득틀 조건과 손실틀 조건 각각에 할당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각각의 틀조건에서 문화성향(개인주의 vs. 집단주의 혹은 수평적 사고성향 vs. 수직적 사고성향)과 종결욕구 수준(저집단 vs. 고집단)에 따라 집단을 다시 분류하였다. 개인주의 문화성향 집단과 집단주의 문화성향 집단, 수평적 사고성향 집단과 수직적 사고성향 집단, 그리고 종결욕구 저집단과 고집단의 분류방법은 아래와 같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분류를 위해 먼저 각 참가자들의 집단주의 문화성

향 점수와 개인주의 문화성향 점수에서 전체 집단주의 문화성향 점수의 평균과 전체 개인주의 문화성향 점수의 평균을 각각 감산하여(centering) 편차점수를 구하였다. 그 다음 이렇게 구한 집단주의 편차점수에서 개인주의 편차점수를 다시 감산하였다. 이 값들 중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집단주의 문화성향 집단으로, 반면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개인주의 문화성향 집단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수평적 사고성향 집단과 수직적 사고성향 집단에 대한 분류도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분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즉, 수직적 사고성향 편차점수에서 수평적 사고성향 편차점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이 차이값이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수직적 사고성향 집단으로,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수평적 사고성향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문화성향이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경우(즉, 각 편차점수의 차이값이 0인 경우)가 발견되지 않아 모든 참가자들의 점수를 분석하였다.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집단의 분류는 종결욕구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종결욕구 저집단에, 그리고 종결욕구 점수 상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종결욕구 고집단에 할당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전체 참가자 302명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을 제외한 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가자 중 남성은 120명, 여성은 178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86세($SD = 2.50$)였다.

측정도구

문화성향

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Singelis, Triandis, Bhawuk 및 Gelfand[1]의 INDCOL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평-개인주의(Horizontal-Individualism: HI), 수직-개인주의(Vertical-Individualism: VI), 수평-집단주의(Horizontal-Collectivism: HC), 그리고 수직-집단주의(Vertical-Collectivism: VC)의 네 가지 문화성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각 문화성향별로 8문항씩 할당되어 있다. 수평-개인주의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이 더 좋다”, 수직-개인주의에는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없다”, 수평-집단주의에는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수직-집단주의에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총 32개의 문화성향 중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문항을 통합하여 16개의 개인주의 문화성향(HI+VI) 문항과 나머지 16개의 집단주의 문화성향(HC+VC)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인주의-집단주의 사고성향 문항을 통합하여 16개의 수평적 사고성향(HI+HC) 문항과 나머지 16개의 수직적 사고성향(VI+VC)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각 문화성향에 따른 신뢰도를 살펴보면, 개인주의 문항의 Cronbach α 는 .76, 집단주의는 .74, 수평적 사고는 .74, 그리고 수직적 사고는 .74이었다.

종결욕구

참가자들의 종결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Webster와 Kruglanski[27]가 개발하고 변지은, 이수정, 유재호 및 이훈구[36]가 번안 및 표준화한 것을 이성수[2]가 수정한 인지적 종결욕구 척도(Need For Cognitive Closure Scale: NFCS) 축약형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적인 삶’, ‘예측가능성’, ‘판단의 명확성’, ‘모호함에 대한 불편감’, 그리고 ‘폐쇄적 사고’의 5개의 하위 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계획적인 삶’ 문항은 “나는 명확하고 구조화된 삶의 방식을 좋아한다”, ‘예측가능성’ 문항은 “나는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다”, ‘판단의 명확성’ 문항은 “나는 보통 중요한 결정을 빠르고 확신 있게 내린다”, ‘모호함에 대한 불편감’ 문항은 “나는 어떤 사람이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폐쇄적 사고’ 문항은 “나는 어떤 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 가능한 그 문제와 관련된 다른 많은 의견들도 고려한다(역코딩)” 등을 포함하는데, 각 하위척도별로 4문항씩 할당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종결욕구가 크다. 종결욕구 질문지의 Cronbach α 는 .64이었다.

의사결정 시나리오

Peters와 Levin[37]의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결정 시나리오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생명 관련 시나리오(인간생명, 동물생명), 자산 관련 시나리오(투자, 농작물), 그리고 사회제도 관련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득들과 손실들 조건 모두 매 시나리오마다 위험회피 대안과 위험추구 대안이 각각 제시되었다. 다만, 제시되는 대안의 내용은 틀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시나리오와 각 시나리오에서의 두 가지 대안들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위험회피 점수와 위험추구 점수의 계산

참가자들은 각각의 문제(시나리오)에 대해 7점 Likert 척도 중 하나의 값을 선택하도록 지시하였다. Likert 척도의 좌측 극단에는 위험회피 대안(A 대안)을, 우측 극단에는 위험추구 대안(B 대안)을 각각 배치하였다. 위험회피 대안을 선호할수록 좌측에 더욱 가깝게, 반면 위험추구 대안을 선호할수록 우측에 더욱 가깝게, 그리고 위험회피 대안과 위험추구 대안의 선호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척도의 중앙에 체크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위험회피 대안 혹은 위험추구 대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할수록 선택하는 값은 좌측 혹은 우측으로 더욱 편향된다.

참가자들의 응답을 두 가지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연속한 점수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는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한 경우 즉, 틀편향(틀효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응답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검증(카이스퀘어 검증)을 사용하였다. 빈도분석은 집단들에서 보이는 빈도(비율)의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집단간 빈도 차이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나 집단 사이에서 관찰되는 그러한 차이의 정도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에 선호도 정도를 7점 Likert 점수로 수집하여 변량분석 방법을 통해 위험회피 또는 위험추구 선호도에서의 정도의 차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7]참조).

본 연구에서는 틀효과를 특정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척도 상의 한쪽 극단으로

편향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이득틀 조건에서는 척도상의 좌측에 가까운 값을 선택할수록 위험회피 선호도가 더 증가하여 틀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이고, 손실틀 조건에서는 우측에 가까운 값을 선택할수록 위험추구 선호도가 더 증가하여 틀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틀효과 점수의 계산도 이득틀 조건에서는 척도 상에서 좌측으로 편향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반면 손실틀 조건에서는 척도 상에서 우측으로 편향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이득틀 조건에서 틀효과 점수와 손실틀 조건에서 틀효과 점수는 각각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의 범위를 갖는다. 이득틀과 손실틀 모두에서 점수가 클수록 틀효과가 큰 것으로 정의된다.

설계

본 연구는 참가자의 두 가지 차원의 문화성향(개인주의 vs. 집단주의, 또는 수평적 vs. 수직적 사고), 틀유형(이득틀 vs. 손실틀), 그리고 종결육구 수준(저집단 vs. 고집단)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는 $2 \times 2 \times 2$ 완전무선 요인설계(completely randomized factorial design)로 이루어졌다. 자료는 두 가지 차원의 문화성향(즉,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석되었다.

절차

먼저 모든 참가자들은 문화성향과 종결육구를 측정하기 위한 두 가지 종류의 설문에 응답을 하였다. 문화성향과 종결육구 설문을 완료하고 난 후 1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이어 의사결정 시나리오가 기재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의사결정 시나리오는 총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사결정 시나리오는 참가자들에 따라 10 가지의 방식으로 제시 순서를 달리하여 역균형화(counterbalancing)하였다. 실험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실험참가자는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였다. 모든 설문을 완료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약 40 분 정도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먼저 기존 연구들에서 밝힌 탈효과(즉, 선호도에서의 빈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점수를 빈도값으로 변환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본 연구에서 정의한 탈효과(즉, 선호도에서의 정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문화성향(2: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또는 수평적 vs. 수직적 사고), 탈유형(2: 이득탈 vs. 손실탈), 그리고 종결육구 수준(2: 저집단 vs. 고집단)의 완전무선 요인설계를 기초로 2회의 삼원변량분석(즉,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 각각에 대해)을 독립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 분석: 탈유형에 따른 위험회피-위험추구 대안 선호도 비교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참가자들의 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값으로 변환된 탈효과 점수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탈효과 점수를 빈도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7점 Likert 척도로 수집한 값을 척도의 중앙에 해당하는 값인 4점을 기준으로 좌측에 위치한 3개의 선호도 점수로 평정하면(이득탈의 경우 5~7점, 손실탈의 경우 1~3점) 위험회피 대안을 선택한 빈도로, 우측에 위치한 3개의 선호도 점수로 평정하면(이득탈의 경우 1~3점, 손실탈의 경우 5~7점) 위험추구 대안을 선택한 빈도로 변환하였다. 탈효과 점수를 빈도로 전환할 때 원래의 탈효과 점수가 4점이었던 것은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한 경우이므로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chi^2(1, N = 263) = 61.10, p < .001$; 시나리오 2: $\chi^2(1, N = 257) = 58.97, p < .001$; 시나리오 3: $\chi^2(1, N = 271) = 26.52, p < .001$; 시나리오 4: $\chi^2(1, N = 268) = 57.44, p < .001$; 시나리오 5: $\chi^2(1, N = 261) = 18.10, p < .001$. 모든 시나리오 조건에서 빈도분석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득탈 조건에서는 위험추구 대안보다는 위험회피 대안을, 반면 손실탈 조건에서는 위험회피 대안보다는 위험추구 대안을 상대

적으로 더 많이 선택하는 선호역전(preference reversal)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변량 분석: 틀유형, 문화성향, 그리고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 분석

틀유형(이득틀 vs. 손실틀), 문화성향(개인주의 vs. 집단주의 혹은 수평적 사고 vs. 수직적 사고), 종결욕구 수준(저집단 vs. 고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틀효과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을 분석 모델에 포함시킨 경우, 틀유형, 문화성향, 그리고 종결욕구 수준 사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통계적 기각역(5%)에 근접한 수준에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F(1, 290) = 3.78, Msc = .95, p = .053, \eta^2 = .01$]. 그리고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을 분석모델에 포함시킨 경우, 틀유형, 문화성향, 그리고 종결욕구 수준 사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1, 290) = 5.00, Msc = .94, p = .026, \eta^2 = .02$]. 두 가지 문화성향 차원에 따른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고, 또한 기존의 틀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e. g., [14]), 이득틀 조건과 손실틀 조건에서의 틀효과가 종결욕구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차후 분석에서는 이득틀 조건과 손실틀 조건을 각각 분리하여 두 가지 문화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변량분석을 통해 각각 살펴보았다.

이득틀 조건 분석

이득틀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 151명의 틀효과 점수에 대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이원변량분석(분석 I)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이원변량분석(분석 II)을 각각 실시하였다. 표 1은 참가자들의 틀유형별 문화성향의 두 가지 차원(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또는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각 집단별 틀효과 점수를 요약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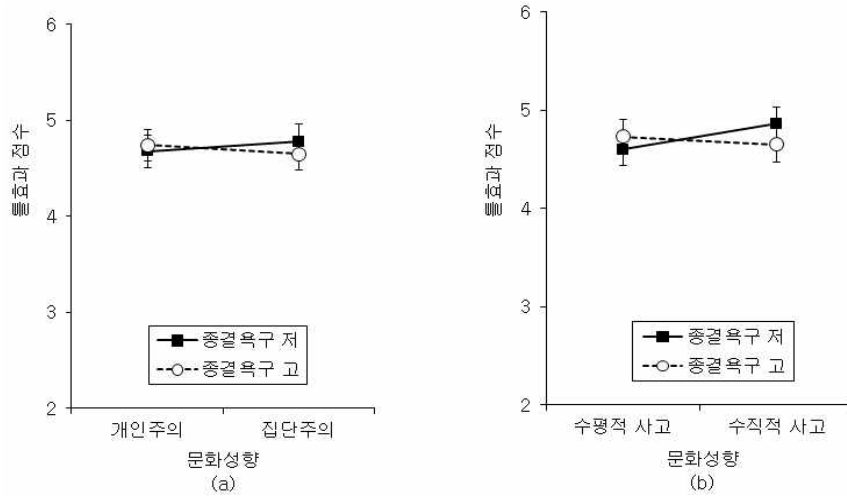
먼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분석 결과,

표 1. 틀유형별 문화성향 두 가지 차원과 종결육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틀효과 점수 비교

분석구분	틀유형	문화성향	종결육구	N	틀효과 점수	
					M	SD
I	이득틀	개인주의	저	40	4.68	1.04
			고	38	4.74	1.02
		집단주의	저	38	4.78	.89
			고	35	4.65	1.24
II	이득틀	수평적 사고	저	40	4.60	1.02
			고	38	4.73	1.20
		수직적 사고	저	38	4.86	.89
			고	35	4.65	1.05
III	손실틀	개인주의	저	25	4.64	.54
			고	43	4.59	.89
		집단주의	저	43	4.34	.85
			고	36	4.98	1.09
IV	손실틀	수평적 사고	저	35	4.59	.74
			고	39	4.57	.87
		수직적 사고	저	33	4.31	.77
			고	40	4.96	1.08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의 주효과[$F(1, 150) = .00, ns$]와 종결육구 수준의 주효과[$F(1, 150) = .04, ns$], 그리고 문화성향 조건과 종결육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F(1, 150) = .32, ns$, 그림 1의 (a)]. 마찬가지로,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과 종결육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분석 결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의 주효과[$F(1, 150) = .21, ns$]와 종결육구 수준의 주효과[$F(1, 150) = .05, ns$], 그리고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과 종결육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F(1, 150) = .98, ns$, 그림 1의 (b)].

이득틀 조건



손실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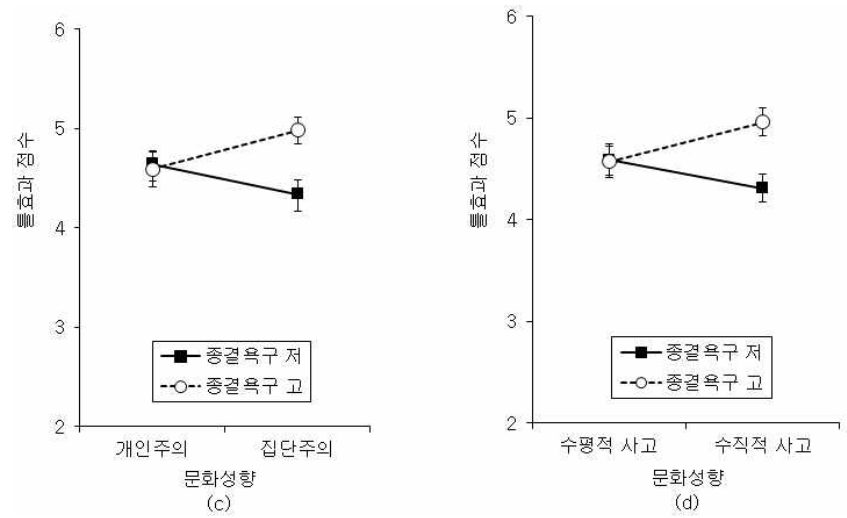


그림 1. 이득틀과 손실틀 조건에서 문화성향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들효과 점수 비교

손실틀 조건 분석

위의 이득틀 조건에서의 방법과 동일하게 손실틀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 147명의 틀효과 점수에 대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이원변량분석(분석 III)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이원변량분석(분석 IV)을 각각 실시하였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146) = .12, ns$). 종결욕구 수준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통계적 기각역에 근접한 수준에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F(1, 146) = 3.83, Mse = .78, p = .052, \eta^2 = .03$). 이는 종결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이 종결욕구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틀효과가 더 큰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1, 146) = 5.37, Mse = .78, p = .022, \eta^2 = .04$, 그림 1의 (c)).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던 것은 개인주의 문화성향 집단의 경우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66) = .28, ns$), 집단주의 문화성향 집단의 경우 종결욕구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종결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틀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F(77) = -2.93, p = .005$).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의 조합에 따른 분석 결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1, 146) = .14, ns$), 종결욕구 수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1, 146) = 4.65, Mse = .78, p = .033, \eta^2 = .03$). 즉, 종결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이 종결욕구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틀효과가 더 컸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1].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과 종결욕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F(1, 146) = 5.24, Mse = .78, p = .024, \eta^2 = .04$, 그림 1의 (d)). 즉, 수평적 사고성향의 경우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72) = .92, ns$), 수직적 사고성향의 경우 종결욕구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종결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틀효과가 더 컸다($F(71) = -2.90, p = .005$).

논 의

본 연구는 틀효과 분석을 다루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틀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문화성향(상위인지 속성)과 인지적 처리 책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결욕구(동기적 속성)를 함께 고려하여 틀효과에 대한 특정 문화성향의 효과가 종결욕구 수준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성향(개인주의-집단주의, 또는 수평적-수직적 사고)과 종결욕구 수준(저-고)의 조합에 따라 다섯 가지의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추구와 위험회피의 틀효과 차이를 빈도분석과 변량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득틀 조건에서는 위험회피 대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반면, 손실틀 조건에서는 위험추구 대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선호 역전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손실을 준거점으로 삼는 이득틀 조건의 경우에는 보다 안전한 위험회피 대안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득을 준거점으로 삼는 손실틀 조건의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한 위험추구 대안을 선택하려 한다는 기존의 위험선택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e. g., [5]).

둘째,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이나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 각각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문화성향 집단이 개인주의 문화성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틀효과가 더 크다는 선행 연구들[10, 13]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동일한 집단주의 문화성향에 속하는 한국 대학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동일 국가내에서의 개인차가 서로 다른 국가간 차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24], 본 연구에서와 같이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비교적 동질적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틀효과에 대한 문화성향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셋째,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는 부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이득틀 조건에서는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손실틀 조건에서는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결욕구

수준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는 긍정적 맥락으로 제시된 의사결정 시나리오보다는 부정적 맥락으로 제시된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선택에 더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종결욕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수평적 사고성향과 종결욕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종결욕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수직적 사고성향과 종결욕구 수준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들은 집단주의 문화성향 혹은 수직적 사고성향 집단의 경우 종결욕구가 높은 집단이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틀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그림 1의 (c)와 (d)].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 가설들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화성향 차원 모두에서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에 비해 종결욕구가 높은 집단에서 틀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는데,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틀효과에 대해 유사한 효과를 갖는 변인들이 조합되는 경우에만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집단간 차이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지닌 사람과 수직적 사고성향을 지닌 사람은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과 유사한 틀효과를 보이는데[10, 22],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틀효과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예를 들어, 문화성향, 성격, 인지욕구, 인지부하, 동기 등)의 효과를 주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상위인지적 속성을 반영하는 문화성향과 인지과정을 조절하는 동기적 속성인 종결욕구 수준을 모두 포함하여 이 두 가지 두 변인의 조합에 따른 틀효과에서 차별적 차이를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틀효과에 대한 문화성향의 효과를 종결욕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틀효과 연구는 대부분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대해 두 가지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틀유형에 따른 빈도 차이를 종속측정치로 분석하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틀효과를 점수화함으로써 틀유형

에 따른 빈도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동일한 경우 (즉, 틀편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틀효과의 정도 차이까지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자료에 대한 변량분석이 가능하였고, 틀효과의 유무뿐만 아니라 그 정도까지 비교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왔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차원의 분류뿐만 아니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 차원까지 확장하여 사람들의 문화성향을 고려함으로써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에서의 차이를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수평적 사고성향,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수직적 사고성향이 의사결정 과정인 틀효과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찰된 개인주의 문화성향과 수평적 사고성향,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수직적 사고성향의 의사결정 과정인 틀효과에 대한 유사한 패턴은 주미정과 이재식[21]의 지각 과정인 전역선행성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과 수평적-수직적 사고성향을 포함한 문화성향은 인지과정의 초기 단계인 지각 과정에서부터 후기 단계인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즉, 인지과정 전반에 수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하는 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이 한국의 대학생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의 틀효과에서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한국 대학생의 틀효과에서의 특성일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연령층 간 차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수준에서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 차이를 살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동일 국가내 서로 상이한 집단 수준(예를 들어, 내집단과 외집단)에서의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간 집단 수준에서의 문화성향에 따른 틀효과 차이를 살펴보고,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틀효과에 대한 문화성향에서의 개인수준에서의 차이, 동일한 국가내 집단수준에서의 차이, 그리고 서로 상이한 국가 간 집단수준에서의 차이 혹은 일치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문화성향과 종결육구 등과 같은 틀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을 조작하는 실험설

계, 예를 들어 점화를 통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조작[38], 시간압력을 통한 종결욕구 수준의 인위적 조작[39] 등을 통해서 각 변인들이 틀효과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 Res*, 29, 240-275.
- [2] 이성수 (2008), 충동구매에서 성차: 물질주의와 인지적 종결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9, 475-495.
- [3]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4] Levin, I. P., Schneider, S. L., & Gaeth, G. J. (1998), All frames are not created equal: A typology and critical analysis of framing effec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6, 149-188.
- [5] Tversky, A., & Kahneman, D.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 453-458.
- [6] Levin, I. P., Gaeth, G. J., Schreiber, J., & Lauriola, M. (2002), A new look at framing effects: Distribution of effect sizes,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dependence of types of effect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Making*, 88, 411-429.
- [7] Zhang, Y., & Buda, R. (1999), Moderating effects of need for cognition on responses to positively versus negatively framed advertising messages. *Journal of Advertising*, 28, 1-15.
- [8] McElory, T., & Seta, J. (2003), Framing effects: An analytic-holistic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610-617.
- [9] Whitney, P., Rinehart, C. A., & Hinson, J. M. (2008), Framing effect under cognitive load: The role of working memory in risk decision.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15,

1179-1184.

- [10] Wang, M., & Fischbeck, P. S. (2004), Similar in how to frame, but different in what to choose. *Marketing Bulletin*, 15, 1-12.
- [11] Simon, A. F., Fagley, N. S., & Halleran, J. G. (2004), Decision framing: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7, 77-93.
- [12] Igou, E. R., & Bless, H. (2007), On undesirable of consequences of thinking: Framing effects as a function of substantive processing.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0, 125-142.
- [13] Hens, T., & Wang, M. (2007), Does Finance have a cultural Dimension? *National Centre of Competence in Research Financial Valuation and Risk Management, Working Paper* No. 377.
- [14] Liu, X., Zhang, Z., & Liang, J. (2007), Need for cognitive closure, framing effect and decision preference. *Acta Psychologica Sinica*, 39, 611-618.
- [15]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16] Kitayama, S., Duffy, S., Kawamura, T., & Larsen, T. J. (2003), Perceiving an object and its context in different cultures: A cultural look at the New Look. *Psychological Science* 14, 201-206.
- [17]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22-934.
- [18] Norenzayan, A., Smith, E. E., Kim, B. J., & Nisbett, R. E. (2002), Cultural preferences for formal versus intuitive reasoning. *Cognitive Science*, 26, 653-684.
- [19]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 47-63.
- [20]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21] 주미정, 이재식 (2012), 문화성향과 분석적-종합적 사고유형의 조합에 따른 전역/국소처리에서의 차이. **인지과학**, 23, 133-157.

- [22] 주미정, 신현정, 이재식 (2012), 문화성향에 따른 전역선행성 효과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4, 41-63.
- [23] Yang, K. S. (2000), Monocultural and cross-cultural indigenous approaches: The royal road to the development of a balanced global psychology.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41-263.
- [24] Oyserman, D., Coon, H. M., & Ki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25] Koo, M., & Choi, I. (2005), Becoming a holistic thinker: Training effect of oriental medicine on reas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9.
- [26] Choi, I., Koo, M., & Choi, J. A.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691-705.
- [27] Webster, D. M., & Kruglanski, A. W. (1994), Individual difference in need for cognitive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49-1062.
- [28] Kruglanski, A. W., & Webster, D. M. (1996), Motivated closing of the mind: "Seizing" and "Freezing." *Psychological Review*, 103, 263-283.
- [29] Kruglanski, A. W., Webster, D. M., & Klem, A. (1993), Motivated resistance and openness to persuasio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861-876.
- [30] Klein, C. T. F., & Webster, D. M.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argument scrutiny as motivated by need for cognitive closur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119-129.
- [31] De Dreu, C. K. W., Koole, S. L., & Oldersma, F. L. (1999), On the seizing and freezing of negotiator inferences: Need for cognitive closure moderates the use of heuristics in negot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348-362.
- [32] Fu, J. H., Morris, M. W., Lee, S., Chao, M., Chiu, C. C., & Hong, Y. (2007), Epistemic motives and cultural conformity: Need for closure, culture, and context as determinations of conflict judge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91-207.

- [33] Chiu, C., Morris, M. W., Hong, Y., & Menon, T. (2000), Motivated cultural cognition: The impact of implicit cultural theories on dispositional attribution varies as a function of need for 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247-259.
- [34] Hong, Y., Morris, M. W., Chiu, C., & Benet-Martinez, V. (2000), A dynamic constructive approach to culture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709-720.
- [35] Hong, Y., & Mallorie, L. M. (2004), A dynamic constructionist approach to culture: Lessons learned from personality psychology. *Journal of Research in Psychology*, 38, 59-67.
- [36] 변지은, 이수정, 유재호, 이훈구 (1997), 개인의 인지적 종료 욕구와 정서에 대한 인식 정도가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 55-77.
- [37] Peters, E., & Levin, I. P. (2008), Dissecting the risky-choice framing effect: Numeracy as an individual-difference factor in weighting risky and riskless options.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3, 425-448.
- [38] Kuhnen, U., Hannover, B., & Schubert, B. (2001), The semantic-procedural interface model of the self: The role of self-knowledge for context-dependent versus context-independent mode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397-409.
- [39] Kruglanski, A. W., Webster, D. M., & Klem, A. (1993), Motivated resistance and openness to persuasio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861-861.

1 차원고접수 : 2013. 04. 25

2 차원고접수 : 2013. 06. 14

최종게재승인 : 2013. 06. 17

(*Abstrac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Cultural Disposition and Need for Cognitive Closure on Framing Effects

Mijung Joo

Jaesik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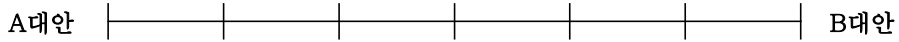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dividual's cultural disposition (individualism-collectivism or horizontal-vertical thinking) and need for cognitive closure(NFC) on framing effects. For this purpose,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4 different cultural disposition groups based on Singelis et al.'s[1] INDCOL scale, and 2 different NFC groups based on Lee's[2] NFC Scale, and then asked to respond on 5 decision making scenario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participants preferred risk-avoidant option in gain frame, whereas risk-seeking option in loss frame. Second, there are no difference of cultural disposition on framing effects, but high NFC group showed larger framing effects than low NFC group in loss frame. Third, collectivism and vertical thinking in high NFC condition showed larger framing effects than low NFC condition.

Key words : framing effect, individualism-collectivism, horizontal-vertical thinking, need for cognitive closure(NFC)

<부록: 의사결정 시나리오>

A대안이 더 좋은 경우에는 왼쪽에, B대안이 더 좋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총 7개의 척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왼쪽 방향으로 갈수록 A대안을 선호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갈수록 B대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나리오 1. “스웨덴은 600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희귀 질병에 대비하고 있다. 이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두 가지의 대안 중 어느 대안이 더 좋은가?”

이득들 조건. A대안: 200명의 목숨을 확실히 구할 수 있다.

B대안: 6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1/3이고,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할 확률은 2/3이다.

손실들 조건. A대안: 400명이 확실하게 죽게 된다.

B대안: 한 사람도 죽지 않을 확률은 1/3이고, 600명이 죽을 확률은 2/3이다.

시나리오 2. “산불이 발생하는 계절이 돌아와서 ○○지역의 오래 된 산림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는 산불의 위험에 노출된 3,600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의 대안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득들 조건. A대안: 1,200마리의 동물들을 확실히 구할 수 있다.

B대안: 3,600마리의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1/3이고, 한 마리도 구할 수 없는 확률은 2/3이다.

손실들 조건. A대안: 2,400마리의 동물들이 확실하게 죽게 된다.

B대안: 한 마리의 동물도 죽지 않을 확률이 1/3이고, 3,600마리의 동물들이 죽게 될 확률은 2/3이다.

시나리오 3. “파산한 회사의 주식에 6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투자한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대안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득률 조건. A대안: 20만원을 확실히 돌려받는다.

B대안: 60만원을 돌려받을 확률은 $1/3$ 이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은 $2/3$ 이다.

손실률 조건. A대안: 40만원을 확실히 잃게 된다.

B대안: 한 푼도 잃지 않을 확률이 $1/3$ 이고, 60만원을 잃을 확률이 $2/3$ 이다.

시나리오 4. “올해 여름 ○○ 지방의 심각한 가뭄으로 24,000평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두 가지의 대안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득률 조건. A대안: 8,000평의 농작물을 확실히 구할 수 있다.

B대안: 24,000평의 농작물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은 $1/3$ 이고, 한 평의 농작물도 구할 수 없는 확률은 $2/3$ 이다.

손실률 조건. A대안: 16,000평의 농작물의 손실을 확실하게 입게 된다.

B대안: 한 평의 농작물 손실도 없을 확률은 $1/3$ 이고, 24,000평의 농작물 손실을 입을 확률은 $2/3$ 이다.

시나리오 5. “○○ 지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위기에 처해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1,200만 명의 시민들이 내년부터 의료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의 대안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이득률 조건. A대안: 400만 명의 시민이 내년에 의료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B대안: 1,200만 명이 의료혜택을 받을 확률이 $1/3$ 이고, 한 명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확률은 $2/3$ 이다.

손실률 조건. A대안: 800만 명의 시민이 내년에 확실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

B대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한 명도 없을 확률은 $1/3$ 이고, 1,200만 명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확률은 $2/3$ 이다.